

전국에 계신 50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림관련 단체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기미년 새해가 동해에서 북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어두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한해의 출발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농림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많은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IMF한파로 나라전체가 매우 큰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온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지혜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뜻있는 해였습니다.

우리 농업부문도 지난해에는 IMF한파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유사 이래 보기드문 집중호우와 태풍이 몰아쳐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농가부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정책자금 원리금상환을 2년 연기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상호금융자금은 원금상환을 2년 연기하고 금리를 2% 인하하였습니다.

조달금리 원가가 8.5%인 정책자금으로 이차를 보전하여 6.5%로 조정하고 다시 5.5%로 낮추었습니다. 농안기금, 촉발기금 등은 계속 5%이하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해농가의 생계지원과 중·고생 학자금면제를 2ha 미만 농가에서 5ha농가까지 대폭 확대하였고 농경지 복구요소에 소요되는 정부지원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999년! 올해는 20세기를

신년사

농림부장관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해 나갈것”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민족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1년입니다. 우리가 안고있는 어려움을 말씀히 극복하고 세계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하반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실업자 증가로 농산물 소비위축이 당분간 계속되는 등 농업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농자재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세계경제의 저성장으로 수출부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전국의 500만 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같이 급변하는 대내외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의 기틀을 굳게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첫째, 농업인 여러분들이 안정속에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경영안정과 유통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농가 긴급경영안정대책과 부채경감대

책에 이어 금년도도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 부실경영체의 퇴출·인수지원과 함께 농산물 소비촉진운동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적자의 어려움속에서도 작년보다 77%나 늘어난 농산물 유통부문에산을 기초로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물류센터·사이버마켓·농민시장 등 다양한 직거래를 확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곡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잦은 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정영농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기상이변과 재해에 대비하여 배수개선과 수리시설 개보수등 생산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비하고 병해충과 재해에 강한 품종의 보급을 늘려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말부터 시작되는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농업인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대책반을 본격 운영하여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 보전기능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세에 맞추어 비료와 농약을 덜 쓰는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이를 실천하는 마을을 들녘별로 조성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비료와 농약을 덜 쓰고 농사를 지을 경우 ha당 52만원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도농연대'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수부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돼지고기·화훼·시설채소 등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자금지원과 수출경영지도를 확대하고 국제박람회 등을 통한 우리농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에로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과 수출

업체가 수출과정에 겪는 기술·자금·정보부족 등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다가오는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하여 품목선택·기술지도·기술혁신 등을 뒷받침하는 농업정보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각종 규제를 다시 점검하여 농업발전과 경쟁력향상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농업투융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보조의 단계적 감축, 사업집행체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실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방지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종합하여 경영컨설팅과 함께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업금융시스템을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500만 농업인 여러분!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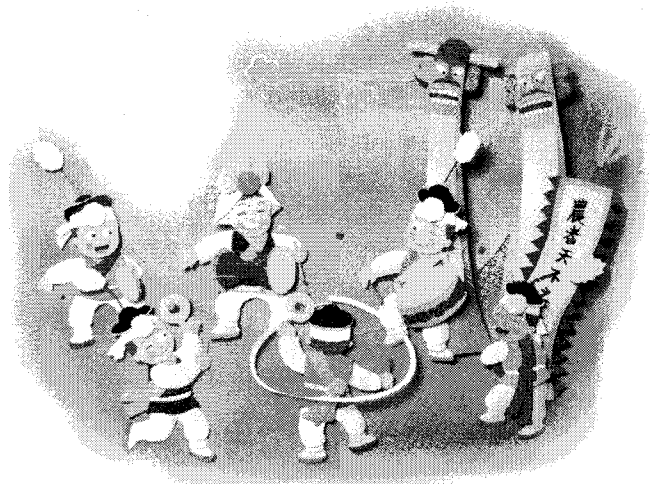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굳은 각오로 지난 1년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으로 내일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도 '장관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은 장관이 되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업·농촌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갑시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월 1일 농림부장관 김성훈

謹賀新年



1999

지난 한해동안 국산약재를 아끼고 사랑해주신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생약살리기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생약협회는 고품질 청정약재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 일동